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수 신 각 교구 총대리, CBCK 사무처장
(경유)

제 목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2021. 9. 1.(수) 11:00에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교령’을 공포하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교구 사무처에는 관련 보도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령의 내용을 교우들에게도 널리 알려, 특별한 은총으로 보존된 하느님의 복된 종들을 기억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교 복자 유해 발견 관련 교구장 교령 및 담화문.

2.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보도자료.

3.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참고자료. 끝.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김 선 태 주교 + 김요태

수신처: 각 교구 사무처, CBCK

담 당 장혜정

사무처차장

이장춘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요태

협조자

시행 특-2021-060 (2021. 9. 1.)

접수

()

우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천주교 전주교구청

/ <http://www.jcatholic.or.kr>

전화 (063)230-1065

/팩스 (063)230-1177

/ chonju11@hanmail.net

/ 공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교 령**

본 주교는 2021년 3월 11일(목)과 그 이후에 발견된 복자 추정 세 분의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 고고학적 정밀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세 분의 유해가 순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되었습니다.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8월 18일(수)에 교회법원은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2021년 9월 1일(수)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순교복자들의 유해 발견을 크게 기뻐하며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 진정성에 대한 교령 반포에 즈음한
교구장 특별담화문)

1.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
리로 우리 교구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1일,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바우배기 일대를 정비하다가
순교복자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지
석)에는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그 유해가 순교복자들의 유해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
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유물과 유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
다.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최종 결과, 두 분의 유해는 1791년 신해박
해 때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32세)와 권상연 야고보
(40세)로 판명되었고, 또 한 분의 유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복자 윤
지현 프란치스코(37세)로 밝혀졌습니다.

2. 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 삼
아 성장해온 우리 교회가 그 순교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의 유해
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주신 뜻이 무
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앞으
로 두고두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대유행으
로 모든 영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관점에 한정하여 우선 두 가지 메시
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4. 첫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처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마르 12,30 참조)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느님은 항상 첫 번째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으뜸으로 모셨던 윤지충은 온갖 회유와 문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마치 잔치에 가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엄 있는 태도로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셨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칼날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충실하셨던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이후 모진 박해로 위기에 내몰린 교우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교우들은 그분들의 순교에서 신앙의 용기를 크게 얻었으며, 그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박해시대의 교우들에게서 공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베아 주교의 기록(1797)을 짧게 요약한 『시복 자료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수 9일 후에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때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병으로 죽어 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감화를 받아 모진 박해로 신앙이 흔들렸던 교우들은 다시 마음을 바로잡았고, 적지 않은 외교인들이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윤지충이 옥에서 피와 눈물로 쓰신 『죄인 지충일기』를 필사하여 영적 독서로 읽으며 믿음을 깊이 다졌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순교는 이후 교우들의 순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박해시대에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의 첫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님은 나중에 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칭송하셨고, 김대건 신부님도 윤지충의 거룩한 순교를 칭송하며 ‘조선의 첫 순교자’로 높이 공경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특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웅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기”(로마 8,37) 때문입니다.

5. 둘째,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애를 다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장소인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는 본래 유항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항검은 초남이 일대의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또 유항검은 윤지충과는 이종사촌이고 권상연과는 내외종간 사촌이었기 때문에, 유항검이 최초의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혈연 차원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친지들 사이에서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었고 또 실제로 그 죄목으로 참수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자신의 땅에 묻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묘광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격하게 깊이 파 순교자들을 모셨고 또 묘지석을 땅속에 묻은 것을 보면, 그런 위험을 의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항검은 윤지충과 권상연보다 몇 년 일찍 세례를 받고 호남이 사도로서 신앙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몸소 실천하며 노비와 마름, 작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과 재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충분히 모시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유항검은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곳은 초남이 성지 일대에서 전망이 좋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항검은 자기 땅 어디에서나 순교자들을 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신 순교자들을 찾아뵙고,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묘소를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을 깊게 다졌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늘 공경하던 유항검은 마침내 그분들이 가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곧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극진히 공경하던 유항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몇몇 교우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유항검과 그 가족들을 바우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하신 윤지헌 프란치스코를 친형 윤지충의 묘 밑에 모셨습니다. 이때에도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

뿐 아니라 집은 파가저택 되고, 능지처참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교자들을 바우배기에 모셨던 것은 신앙으로 다져진 초남이 신앙공동체 교우들의 신앙과 형제애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희생된 교우들의 수는 200여명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호남의 사도 유항검의 고향 초남이 신앙공동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사의 진주로 일컬어지는 동정부부 순교복자 탄생의 배경에도 이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초남이 신앙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분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된 바우배기 묘소에서 분명해진 점은 초남이를 기점으로 교우들이 신앙으로 서로 연대하고 깊은 친교와 형제애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산 이들만이 아니라 순교하신 분들과도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6.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주교구는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을 위시하여 호남의 사도 유항검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스민 땅이며,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교우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켜온 터전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교구가 이번 유해 발견을 계기로 순교 영성을 더욱 되살리는 일은 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중대한 영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7. 이번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뜻은 순교자들이 지니셨던 영성을 우리도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고, 창조된 목적에서 점점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연대와 형제애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성찰한 두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쇠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교 영성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교 영성을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초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알고 본받기 위해 그분들에 관한 『공술기·신문기』와 북경의 구베아 주교의 『기록들』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시기 바

랍니다.

둘째, 세 분 순교복자를 모신 초남이성지를 자주 순례하고, 순교의 분명한 증거인 유해 앞에 머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혹은 본당에서 124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지향하며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를 바치시고, 이미 각 본당별로 조직되어 있는 순교자현양분과를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에 적극 힘쓰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성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거나 돌보지 못한 신앙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성역화하는 데에 많은 기도와 물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모두 이렇게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현양함으로써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교구가 더욱 쇄신되어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복음화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전주교구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1년 9월 1일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 보도자료

배포일 : 2021-09-01(수)
문 의 : 전주교구 홍보국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55036)
☎ 063-230-1166, 010-8714-0144
Fax 063-230-1175
E-mail : catholic114@hanmail.net
<http://www.jcatholic.or.kr>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
-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일시: 2021년 9월 1일(수) 11:00

장소: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의 사도 유항검관' 4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와이파이PW: c00410041)

천주교 전주교구

<목 차>

1. 식순	1
2. 발표자	1
3. 배석자	1
4. 발표문	2
(1) 인사말	2
(2) 유해 발견 과정	3
(3)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	5
(4)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과정	7
5. 교령	8
6. 담화문	9
7. 초남이성지	13
8. 유해 발견 장소	13
9. 유해 발견 개요	14
10. 순교자 유해 감식 결과	16
(1) 유해 감식 방법	16
(2) 유해 감식 결과	16
11.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18
(1) 복자 윤지충 바오로 약력	18
(2) 복자 윤지충 바오로 약전	18
12.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권상연 야고보	20
(1) 복자 권상연 야고보 약력	20
(2) 복자 권상연 야고보 약전	20
13.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22
(1)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약력	22
(2)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약전	22
14.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가치	24
15. 순교자 현양과 공경을 위한 이후 일정	29
16.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30

1. 식순

행사 내용	비 고
시작기도	사회자 -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국장 김원중 안토니오 신부
발표자와 배석자 소개	사회자
발 표	1. 인사말 -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2. 유해 발견 과정 -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3.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 -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 4.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과정 - 전주교구법원 사법대리 겸 재판관 김진화 마태오 신부
교령 및 특별담화문 발표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질의응답	
마침 기도	사회자

2. 발표자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전주교구 총대리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초남이성지 담당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 호남교회사연구소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전주교구 사법대리

3. 배석자

순교자현양사업단, 전주교구 사제단, 평신도, 언론사

4. 발표문

(1) 인사말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안녕하십니까!

전주교구의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해주신 방 송사, 언론사, 교회 관계자, 주교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부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천주교 전례력으로 9월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러한 순교자 성월을 여는 첫 날에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신유박해 순교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를 200여년 만에 발견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포하는 뜻깊은 날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감사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교구를 넘어 나아가 한국 천주교회에 이 감동과 감격, 감사의 순간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신 교구장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과 감식, 유해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유해 보존과 안치등을 논의하고 추진해온 순교자현양사업단 여러분들과 교회법을 통해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 판결해 주신 교구법원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남이성지 성역화를 시작해주시고 그 뜻을 이어가도록 응원해 주신 초대 김환철 스테파노 신부님, 평생 교회사를 위해 헌신해주시고 35여년의 긴 시간동안 복자들의 유해를 찾아 발품을 팔으신 호남교회사연구소 명예소장 김진소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교복자 유해의 발견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기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를 성역화하는 작업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시복을 받아 복자품에 오르신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결과적으로 순교자 유해의 발견은 주님께서 주신 크나큰 선물이며 동시에 순교자들의 삶을 보존 발전시켜야할 과제를 남겨준 신앙의 유산임은 분명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전주교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깊은 흠숭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유해 발견 과정

순교자 유해 발견에 관하여

천주교 전주교구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3년 전인 2018년 8월에 초남이성지에 부임하였고, 성지를 둘러보다가 바우배기라는 곳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우배기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전주교구 김진소 신부님이 쓰신 천주교 전주교구사와 관련 서적들에서 해당 내용을 정독하였습니다. 바우배기 일대는 유항검 복자 가족의 묘가 1914년 치명자산성지로 이장되기 전까지 원 묘지터가 자리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김진소 신부님을 찾아뵙고 바우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우배기 개장 전 모습

그리고 초남이성지의 초대신부이자 바우배기 성지개발을 시작한 김환철 신부님을 찾아뵙고 바우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부임 이전부터 김진소 신부님의 저술을 통해 바우배기에 대하여 알고 계셨는데, 부임 후 바우배기에 대한 동네 주민의 증언을 듣고 2003년에 현 유해 발견 장소에 십자가상을 설치하였으며 성토(盛土)하여 낮은 봉분을 높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은 봉분만 있을 뿐 아래에 유골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신부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이 일대에서 유항검 가족의 원 묘지터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여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산공사는 임대만 하더라도 성지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입 이전에 대부 과정을 거치도록 권유하여 2020년 8월에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후에 다른 이들이 이곳을 매입하여 성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산공사에 매입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자산공사는 봉분만 있다 하더라도 묘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장분묘

업체를 통하여 공사와 발굴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28일 해당업체와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계약하였고 다음날인 29일에 10기(基)의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안내문을 설치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공고 기간이 완료된 이후 1호와 2호 무덤이 자신의 조상의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나와, 나머지 여덟 기의 무덤을 개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1일, 해당업체가 현 장소에서 봉분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발굴하는 과정에서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5호 무덤과 3호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사발지석의 명문을 판독하면서 한국의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과 권상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였고 즉각 전주교구 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주교님은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으며, 당일 성지에 방문하시어 호남교회사연구소 두 신부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3)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는 천주교 전주교구장 주교의 위임을 받아 바우배기 묘소의 정밀조사 및 유물에 대한 연구를 前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윤덕향 교수와 함께, 유해의 해부학적 조사와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송창호 교수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묘소의 정밀조사 및 출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묘지의 조성연대와 출토물의 연대가 복자 윤지충 바오로과 복자 권상연 야고보가 순교한 1791년과 부합하고,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사발지석의 명문 내용이 복자 윤지충 · 복자 권상연의 인적사항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해조사는 성별검사, 치아와 골화도를 통한 연령검사 및 해부학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Y 염색체 부계확인검사(Y-STR)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순교할 당시의 나이와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부학적인 조사 결과로는 유해에서 참수형에 해당하는 특이소견을 확인했으며, Y 염색체 부계확인검사 결과 각각 해남윤씨와 안동 권씨 친족 남성 5명의 유전정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인 조사과정에서 묘지 일련번호 8호의 유해에서 특이한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유해에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인 능지처사의 흔적이 선명했고,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이에 역사 사료를 다시 검토하고 묘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및 유해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Y 염색체 부계확인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남 윤씨 친족 남성 5명 및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8호 유해의 유전정보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역사 사료의 내용, 묘지의 조성연대, 출토물의 연대측정, 해부학적인 검사 결과, 그리고 유전정보 등을 종합한 결과, 8호 유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전주 남문 밖 형장에서 능지처사로 순교한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에 있을 보고회에서 다루겠습니다.

(4)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과정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추정 유해와 관련한 교회특별법원의 결정

전주교구 사법대리 겸 재판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1. 교구특별법원은 2021년 8월 10일자로 발령된 교구장 주교의 교령에 따라 특별법정을 2021년 8월 18일에 개시하였다.
2. 교령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검찰관 박상운 토마스 신부, 공증관 백재욱 스테파노 신부를 지정하고, 청원인에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를 증인으로, 전북대 해부학 교수인 송창호 벨라도와 고고학자인 윤덕향 안토니오 교수, 교회사 연구소의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와 발굴 과정의 모든 사료를 정리하고 기록한 이태영 대건 안드레아 교수를 소환하여 각 분야의 연구결과와 DNA검사결과, 고고학적 분석 결과를 청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교회사적으로는 발굴유해에 대한 문헌 분석 보고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발굴 지역의 성지 담당자이며 발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를 참관인으로 소환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3. 교구특별법원은 의학 전문가이자 해부학자인 송창호 교수의 DNA분석 결과 3호 5호 8호의 발굴 및 수습 유해가 해남 윤씨와 안동 권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고학자이자 발굴 전문학자인 윤덕향 교수의 분석 결과 출토된 사발의 신빙성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순교 복자의 유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받아 들었다. 또한 사학징의 등 교회사적 문헌과 구전, 그리고 여러 정황증거 등을 제시한 이영춘 신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4. 교회특별법원은 본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교회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지적한 검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제출된 과학적 연구 결과와 고고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문헌 등 여러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이에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가 없어, 바우배기에서 발굴 및 수습된 유해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임을 선언한다.

5. 교령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교 령

본 주교는 2021년 3월 11일(목)과 그 이후에 발견된 복자 추정 세 분의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 고고학적 정밀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세 분의 유해가 순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되었습니다.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8월 18일(수)에 교회법원은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2021년 9월 1일(수)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6. 담화문

순교복자들의 유해 발견을 크게 기뻐하며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 진정성에 대한 교령 반포에 즈음한
교구장 특별담화문)

1.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구는 그 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1일,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바우배기 일대를 정비하다가 순교복자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지석)에는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그 유해가 순교복자들의 유해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유물과 유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최종 결과, 두 분의 유해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32세)와 권상연 야고보(40세)로 판명되었고, 또 한 분의 유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37세)로 밝혀졌습니다.

2. 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밟고서 살아 성장해 온 우리 교회가 그 순교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의 유해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두고두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모든 영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관점에 한정하여 우선 두 가지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4. 첫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처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마르 12,30 참조)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느님은 항상 첫 번째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으뜸으로 모셨던 윤지충은 온갖 회유와 문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마치 잔치에 가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엄 있는 태도로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셨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칼날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충실하셨던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이후 모진 박해로 위기에 내몰린 교우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교우들은 그분들의 순교에서 신앙의 용기를 크게 얻었으며, 그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박해시대의 교우들에게서 공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베아 주교의 기록(1797)을 짧게 요약한 『시복 자료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수 9일 후에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때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병으로 죽어 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감화를 받아 모진 박해로 신앙이 흔들렸던 교우들은 다시 마음을 바로잡았고, 적지 않은 외교인들이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윤지충이 옥에서 피와 눈물로 쓰신 『죄인 지충일기』를 필사하여 영적 독서로 읽으며 믿음을 깊이 다졌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순교는 이후 교우들의 순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박해시대에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의 첫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님은 나중에 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칭송하셨고, 김대건 신부님도 윤지충의 거룩한 순교를 칭송하며 ‘조선의 첫 순교자’로 높이 공경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특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웅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기”(로마 8,37) 때문입니다.

5. 둘째,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애를 다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장소인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는 본래 유항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항검은 초남이 일대의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또 유항검은 윤지충과는 이종사촌이고 권상연과는 내외종간 사촌이었기 때문에, 유항검이 최초의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혈연 차원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친지들 사이에서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었고 또 실제로 그 죄목으로 참수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자신의 땅에 묻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묘광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격하게 깊이 파 순교자들을 모셨고 또 묘지석을 땅속에 묻은 것을 보면, 그런 위험을 의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항검은 윤지충과 권상연보다 몇 년 일찍 세례를 받고 호남이 사도로서 신앙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몸소 실천하며 노비와 마름, 작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과 재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충분히 모시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유항검은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곳은 초남이 성지 일대에서 전망이 좋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항검은 자기 땅 어디에서나 순교자들을 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신 순교자들을 찾아뵙고,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묘소를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을 깊게 다졌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늘 공경하던 유항검은 마침내 그분들이 가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곧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극진히 공경하던 유항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몇몇 교우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유항검과 그 가족들을 바우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하신 윤지헌 프란치스코를 친형 윤지충의 묘 밑에 모셨습니다. 이때에도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유항검은 대역죄인으로 단죄 받아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 아니라 집은 파가저택 되고, 능지처참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교자들을 바우배기에 모셨던 것은 신앙으로 다져진 초남이 신앙공동체 교우들의 신앙과 형제애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희생된 교우들의 수는 200여명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호남의 사도 유항검의 고향 초남이 신앙공동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사의 진주로 일컬어지는 동정부부 순교복자 탄생의 배경에도 이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초남이 신앙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분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된 바우배기 묘소에서 분명해진 점은 초남이를 기점으로 교우들이 신앙으로 서로 연대하고 깊은 친교와 형제애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산 이들만이 아니라 순교하신 분들과도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6.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주교구는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을 위시하여 호남의 사도 유항검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스민 땅이며,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교우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켜온 터전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교구가 이번 유해 발견을 계기로 순교 영성을 더욱 되살리는 일은 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중대한 영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7. 이번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뜻은 순교자들이 지니셨던 영성을 우리도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고, 창조된 목적에서 점점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연대와 형제애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성찰한 두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쇠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교 영성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교 영성을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초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알고 본받기 위해 그분들에 관한 『공술기·신문기』와 북경의 구베아 주교의 『기록들』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 분 순교복자를 모신 초남이성지를 자주 순례하고, 순교의 분명한 증거인 유해 앞에 머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혹은 본당에서 124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지향하며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를 바치시고, 이미 각 본당별로 조직되어 있는 순교자현양분과를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에 적극 힘쓰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성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거나 돌보지 못한 신앙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성역화하는 데에 많은 기도와 물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모두 이렇게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현양함으로써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교구가 더욱 쇠신되어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복음화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전주교구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1년 9월 1일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7. 초남이성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마을은 ‘호남의 사도’ 복자¹⁾ 유항검 아우구스티노²⁾의 생가 터가 자리한 곳이며,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유충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가 4년 동안 동정부부의 삶을 살았던 곳이다. 또한 유항검이 복음을 전하던 교리당과 순교 후 파가저택(破家瀦澤)³⁾한 역사적 흔적이 있고, 초남이에서 북쪽으로 1km가 채 안 되는 바우배기는 1914년 전주 치명자산성지로 옮겨지기 전까지 유항검 일가가 묻혀 있었던 묘지터로 추정되어 왔다. 이처럼 초남이성지는 호남지방 천주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성지이다.

8. 유해 발견 장소

발견장소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
위 치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69-17 (초남신기길 169-17)
장소사진	

1) 복자 자료 참고.

2)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자료 참고.

3) 조선 시대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 연못을 만들던 형벌.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위배한 강상죄인(綱常罪人)에 대한 형벌로, 죄인의 처자(妻子)를 노비로 만들고 죄인이 살고 있던 고을의 호(號)를 강등시키며, 그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는 등의 형벌이 뒤따랐음.

9. 유해 발견 개요

	항 목	내용	날짜 또는 기간 (2021년)
묘소 정비	유해의 발견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 성역화 작업중 발견	3월 11일
	순교자 추정 유해 유물 발견 보고서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천주교 전주교구장 주교에게 발송함.	3월 11일
유해 발굴	유해발굴 위임장	호남교회사연구소	3월 11일
	순교 복자 유해 발굴 및 정밀감식을 위한 훈령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3월 12일
	유해의 감식 진행 계획 설명	유해 감식 책임자(전북의대 송창호 교수)가 초남이성지 교리당에서 천주교 전주교구장과 신부들에게 설명함	3월 13일
	유해의 감식 의뢰서 및 허락서	천주교 전주교구장이 유해 감식을 책임자에게 위임함	3월 13일
	유해발굴 선서문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신부, 전북의대 송창호 교수, 前 전북대 고고인류문화학과 윤덕향교수	3월 15일
유해 감식	유해의 감식 공문서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공문 발송함	3월 18일
	유해의 이동	유해를 초남이성지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실습실로 이동함	3월 18일
	유해의 정리 및 분류	유해 감식 책임자와 연구원(전북의대 김지현 박사)이 실시함	3월 11일~4월 30일
	유해의 컴퓨터단층촬영 (CT)	전북대학교 동물병원 (수의과대학 이기창/윤학영 교수)에서 실시함	4월 14일(8호) 4월 23일(3호, 5호)
	전북대학교병원 IRB 자료 준비 및 승인 통보	유해 감식 책임자가 IRB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받음 (과제번호: CUH 2021-05-007)	4월 15일~5월 14일

유해 감식	치아를 이용한 나이 감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서봉직 교수가 실시함	4월 15~6월 25일
	유해의 성별, 키, 나이, 외상 조사 및 자문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민 감식관이 전북의대를 방문하여 진행함.	5월 3일~6월 21일
	유해의 친족의 유전자 검사(Y-STR)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황춘홍대표)에서 유해와 친족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	4월 22일~7월 12일
	유해의 형태 계측	연구원(전북의대 김지현 박사)이 진행함.	5월 1일~6월 30일
	유해의 사진 촬영	연구원(전북의대 김지현 박사)이 진행함.	7월 1일~7월 16일
	유해 감식 결과보고서 작성	유해 감식 책임자가 작성함.	7월 17일~7월 30일
교령 발표	복자 추정 유해의 진정성 관련 법정 구성 청원서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8월 9일
	복자 추정 유해의 진정성 관련 법정 구성 교령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8월 10일
	복자 추정 유해의 진정성 관련 법정구성 임명장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신부, 전북의대 송창호 교수, 前 전북대 인문대 윤덕향교수,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이태영 명예교수	8월 10일
	특별법정 개정	전주교구 법원	8월 18일
	특별법정 폐정	전주교구 법원	8월 18일
	유해의 진정성과 공경에 대한 교령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9월 1일

10. 순교자 유해 감식 결과

(1) 유해 감식 방법

가. 유해의 나이 추정

- 유해의 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치아의 교모도(마모정도)를 측정하여 나이를 추정하였다. 치아로 추정한 나이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서봉직 교수가 실시하였고, 치아의 교모도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교모도 8단계로 구분, 소구치 및 대구치 교모도, 남녀 구별)으로 산출하였다⁴⁾. 둘째, 뼈의 골화 유무 및 성숙 정도를 관찰하여 나이를 추정하였다⁵⁾. 뼈의 골화 유무 및 성숙 정도로 추정한 나이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민 감식관이 실시하였다.

나. 유해의 성별 추정

- 유해의 성별은 머리뼈(두개골)와 볼기뼈(골반골)의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하고 계측하여 추정하였다⁶⁾. 유해의 성별은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민 감식관이 실시하였다.

다. 유해의 키(신장) 추정

- 유해의 키(신장)는 긴뼈(넙다리뼈, 위팔뼈, 정강뼈, 노뼈, 자뼈 등)의 길이를 계측한 다음, 산출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⁷⁾. 유해의 키(신장) 추정은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민 감식관이 실시하였다.

라. 유해의 부계확인 유전자 검사

- 복자 권상연 야고보로 추정되는 3호 유해와 안동 권씨 친족들 사이에 부계 혈연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Y 염색체 부계확인 검사 (Y-Chromosome DNA Test / Y-STR)를 실시하였다. 또한 복자 윤지충 바오로로 추정되는 5호 유해와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로 추정되는 8호 유해와 해남 윤씨 친족들 사이에 부계 혈연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Y 염색체 부계확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Y 염색체 부계확인 검사는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2) 유해 감식 결과

관리번호		3호 유해	5호 유해	8호 유해
성별 추정		남성	남성	남성
나이 추정	치아	31 ~ 41 세	29 ~ 39세	27 ~ 37 세
	골화 정도	20 ~ 60 세 (25 ~ 45세)	20 ~ 60세 (35 ~ 45세)	20 ~ 60 세 (30 ~ 50세)
신장(키) 추정		152.5 ± 3.8 cm	165.2 ± 3.8 cm	163.9 ± 3.8 cm

4) 참고문헌: 김영구: 법치의학, 제7 개정판, 신홍인터내셔널. 2007.

5) 참고문헌: 김이석, 박대균, 이우영, 이상섭: 법의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 지코사이언스. 371쪽, 2009.

6) 참고문헌: 김이석, 박대균, 이우영, 이상섭: 법의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 지코사이언스. 393~406쪽, 2009.

7) 참고문헌: 김이석, 박대균, 이우영, 이상섭: 법의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 지코사이언스. 406~408쪽, 2009.

Y 염색체 부계 확인검사 (Y-STR)	안동 권씨 친족들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추정	해남 윤씨 친족들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8호 유해(윤지현 프란치스코)와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해남 윤씨 친족들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5호 유해(윤지충 바오로)와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사료(史料) 및 유물	권상연 41세 참수형 (1791년) * 묘지 내 백자사발지석	윤지충 33세 참수형 (1791년) * 묘지 내 백자사발지석	윤지현 37세 능지처참형 (1801년) * 묘지 내 백자제기접시
특이 소견	외상 : 관찰되지 않음 머리뼈 일부와 목뼈의 소실	외상 : 사망 무렵 골절 (예기 손상) * 다섯째목뼈(경추)	외상 : 사망 무렵 골절 (예기 손상) * 둘째목뼈(경추) * 양쪽 위팔뼈(상완) * 왼쪽 넓다리뼈(대퇴골)
유해 감식 결과 해석	복자 권상연 야고보	복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5호 유해(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다섯째목뼈에서 사망 무렵 예기 손상 모습



8호 유해(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에서
양쪽위 팔뼈(상완골) 예기손상 모습



3호 유해(복자 권상연 야고보)의 골반골 모습

11.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1) 복자 윤지충 바오로 약력

- 고산 윤선도(尹善道)의 6대 후손이자, 윤두서(尹斗緒)의 증손이다.
- 1759년 해남 윤씨로 아버지 윤경(尹憬)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 1783년 25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 1784년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실의』와 『칠곡』을 접하고, 고종사촌인 정약용 형제의 가르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 1787년 정약전을 대부로 모시고,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 1790년 북경 구베아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금지령을 내렸다.
- 1791년 윤지충이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이 일어났다. 5월 어머니 사망하자 8월에 천주교 예법으로 장례를 치렀다.
- 1791년 음력 10월 26일 진산관아에 자수하였다.
- 1791년 음력 10월 29일 새벽에 전라감영으로 압송하였다.
- 1791년 음력 10월 30일 전라관찰사 정민시에게 문초를 받았다.
- 1791년 음력 11월 13일(양력 12월 8일) 오후(辛時 :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주 남문밖(전동성당 터)에서 참수형(32세)으로 순교하였다.
- 1791년 처형된 지 9일째 되는 날에 매장 허락이 떨어졌다.
-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 2005년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가 순교자의 묘소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다. 이를 초남이성지 초대 담당인 김환철 신부가 정리하여 십자가와 표지판을 세우고 관리하였다.
- 2021년 3월 11일 초남이성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묘소를 정비하다가,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묘소를 발견하였다.

(2) 복자 윤지충 바오로 약전

윤지충(尹持忠) 바오로는 1759년 전라도 진산 장구동에 거주하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는 '우용'이고,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전주에서 순교한 윤지현(프란치스코)은 그의 아우이다. 본래 총명한 데다가 품행이 단정하였던 바오로는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1783년 봄에는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또 이 무렵에 고종 사촌 정약용(요한) 형제를 통해 천주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다음해부터는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 읽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3년 동안 교리를 공부한 그는 1787년 인척인 이승훈(베드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후 바오로는 어머니와 아우 윤지현, 이종 사촌 권상연(야고보)에게도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 인척인 유항검(아우구스티노)과 자주 왕래하면서 널리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바오로는 권상연과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다. 또 이듬해 여름 어머니(즉 권상연의 고모)가 사망하자 유교식 제사 대신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이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윤지충 바오로가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얼마

안되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그곳을 온통 소란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진산 군수에게 내려졌다. 체포령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충청도 광천으로, 권상연은 충청도 한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진산 군수는 그들 대신 바오로의 숙부를 감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그들은 즉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다. 그때가 1791년 10월 중순경이었다.

진산 군수는 먼저 그들을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차례의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자, 진산 군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주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바오로와 권상연은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우선 전라 감사는 그들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을 얻어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바오로는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사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이에 화가 난 감사는 그들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바오로와 권상연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전주 감사는 할 수 없이 그들로부터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내 조정은 다시 한 번 소란스러워졌고, ‘윤지충과 권상연을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게 되었다. 결국 임금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의 처형을 윤허하였다.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 소리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형 판결문이 전주에 도착하자 감사는 즉시 바오로와 권상연을 옥에서 끌어내 전주 남문 밖으로 끌고 갔다. 이때 바오로는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을 하였으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칼날을 받았으니, 그때가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바오로와 권상연의 친척들은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셨으며, 그중 몇 조각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12.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권상연 야고보

(1) 복자 권상연 야고보 약력

- 1751년 권이현의 손자로, 안동 권씨 권세학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 윤지충 바오로와는 내외종간이고,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는 이종사촌이다.
- 1787년 유항검에게 세례를 받았다.
- 1791년 음력 10월 26일 진산관아에 자수하였다.
- 1791년 음력 10월 29일 새벽에 전라감영으로 압송되었다.
- 1791년 음력 10월 30일 전라관찰사 정민시에게 문초를 받았다.
- 1791년 11월 13일(음력, 양력 12월 8일) 오후(辛時 :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주 남문밖(전동성당 터)에서 참수형(40세)으로 순교하였다.
- 1791년 처형된 지 9일째 되는 날에 매장 허락이 떨어졌다.
- 1795년 4월(음) : 유관검이 이존창과 함께 주문모 신부를 고향집(유관검의 고향집)으로 맞아들인다. 마침 가는 길에 지충·상연(윤지충·권상연)의 무덤가를 지나게 되었다.
-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 2005년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가 순교자의 묘소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다. 이를 초남이성지 초대 담당인 김환철 신부가 정리하여 십자가와 표지판을 세우고 관리하였다.
- 2021년 3월 11일 초남이성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묘소를 정비하다가,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복자 권상연 야고보의 묘소를 발견하였다.

(2) 복자 권상연 야고보 약전

권상연(權尙然) 야고보는 1751년 진산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래 그는 학문에 정진해 오고 있었으나, 고종 사촌 윤지충(바오로)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에는 기존의 학문을 버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그때가 1787년 무렵이었다.

이후 야고보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만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지충과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다. 또 이듬해 여름 고모(즉 윤지충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는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신주와 같은 나뭇조각을 공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익한 일이며, 이를 금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형벌과 죽음을 택하겠다.”

야고보와 윤지충이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친척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그러한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그곳을 온통 소란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그들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진산 군수에게 내려졌다.

체포령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충청도 한산으로, 윤지충은 충청도 광천으로 각각 피신하였다.

그러자 진산 군수는 그들 대신 윤지충의 숙부를 감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그들은 즉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다. 그때가 1791년 10월 중순경이었다.

진산 군수는 먼저 그들을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차례의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자, 진산 군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주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 감영에 도착한 야고보와 윤지충은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전주 감사는 할 수 없이 그들로부터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내 조정은 다시 한 번 소란스러워졌고, ‘권상연과 윤지충을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게 되었다. 결국 임금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의 처형을 윤허하였다.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 소리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형 판결문이 전주에 도착하자 감사는 즉시 야고보와 윤지충을 옥에서 끌어내 형장으로 정해진 남문 밖으로 끌고 갔다. 야고보는 이때 초죽음이 된 상태였음에도 이따금씩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다.

형장에 이르자, 윤지충이 먼저 칼날을 받았다. 이어 야고보도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칼날을 받았으니, 때는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야고보와 윤지충의 친척들은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셨으며, 그중 몇 조각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13.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1)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약력

- 고산 윤선도(尹善道)의 6대 후손이자, 윤두서(尹斗緒)의 증손이다.
- 1764년 해남 윤씨로 아버지 윤경(尹憬)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 숙부 윤증(尹憎)의 집으로 양자로 입적되었다.
- 1789년 형 윤지충을 통해 천주교에 대해 알게 되고, 세례명 프란치스코로 세례를 받았다.
- 1791년 형 윤지충과 사촌 권상연의 순교 이후에 고산 윤동(완주군 운주면 저구리)으로 이사하였다. 고산 저구리에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 1795년 봄, 주문모 신부가 고산 저구리 이존창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이때 보례를 받고 성사를 받았다.
- 1796년 전라도 공동체가 '대박청래운동'을 추진할 때, 유항검 형제의 부탁에 황심을 중국에 보낼 밀사로 추천하고 김유산을 밀사로 보냈다.
- 1801년 신유박해에 전라감영에 체포되었다.
- 1801년 3월 28일 전라감영에서 심문을 받았다.
- 1801년 9월 11일 의금부에서 윤지헌을 심문하고 모역동참죄(謀逆同參罪)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유항검과 함께 전주로 압송되었다.
- 1801년 9월 17일(양력 10월 24일) 전주 남문밖(전동성당 터)에서 능지처참형으로 순교하였다.(37세)
- 가족들에게 유배형이 내려졌다. 윤지헌의 처 유종항(柳宗恒)은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의 노비로 유배되었다. 15세인 큰아들 윤종원(尹鍾遠)은 전라도 제주목에 관노로 유배되었다. 13세인 둘째 아들 윤종근(尹鍾近)은 경상도 거제부에 관노로 유배되었다. 4세인 셋째 아들 윤종득(尹鍾得)은 전라도 해남현에 관노로 유배되었다. 큰딸 윤영일(尹英日)은 함경도 경흥부에 관비로 유배되었다. 둘째 딸 윤성애(尹成愛)는 평안도 벽동의 관비로 유배되었다.
-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 2005년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가 순교자의 묘소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다. 이를 초남이성지 초대 담당인 김환철 신부가 정리하여 십자가와 표지판을 세우고 관리하였다.
- 2021년 3월 11일 초남이성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묘소를 정비하다가,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묘소를 발견하였다.

(2)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약전

윤지헌(尹持憲) 프란치스코는 1764년 전라도 진산(현 충남 금산군과 논산군 지역)에서 학문으로 이름이 있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바오로)은 그의 형이다.

프란치스코는 1789년에 형 윤지충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에 앞서 윤지충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되어 인척에게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보고 오랫동안 그 내용을 탐독한 끝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1787년 이승훈(베드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후 윤지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아우 프란치스코와 함께 열심히 교회

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다.

1791년에 형이 순교하자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진산을 떠나 전라도 고산의 운동(현 완주군 운주면 저구리)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을 베껴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에 입교시키곤 하였다. 또 1795년에는 저구리를 방문한 주문모(야고보)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교회의 밀사 황심(토마스)을 복경에 파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교회 활동이 관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의 옥에 갇혔으며,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는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천주교 교리를 끊지 못하였고, 고질병처럼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오로지 만 번 죽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천당 지옥의 이치를 굳게 믿은 탓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해자들은 교회 밀사가 복경을 왕래한 이유를 알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조정의 명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포도청과 형조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의금부에서 마지막 문초를 받은 후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였으며, 다시 전주로 이송되어 1801년 10월 24일(음력 9월 17일)에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그가 순교한 뒤 고산에 갇혀 있던 아내와 가족들은 모두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14.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가치

2021년 3월 11일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에 소재한 바우배기⁸⁾ 묘소에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2014년 시복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복자들과 시복을 추진 중인 수많은 하느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신앙의 소명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1. 교회사적 성과와 가치

① 한국천주교회 순교사의 첫 순교자 묘지와 유해 발견

김대건 신부의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는 이 순교복자를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⁹⁾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순교역사에서 단순히 순서상 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과 공경에서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발견된 순교자의 묘지와 유해는 한국천주교회 순교역사의 첫 자리를 장식하는 분들의 확인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다.

② 교회사 사료와 기록의 확증

한국천주교회 순교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기록과 사료가 충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두 순교자의 묘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때문에 두 순교자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장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 교회사 연구의 몫이었다.

기록 중에 두 순교자의 묘에 대한 내용은 『사학징의』의 유관검 공초에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¹⁰⁾ 유관검이 이존창과 함께 주문모 신부를 모시고 내려오는 길에 마침 윤지충과 권상연의 무덤가를 지나가게 되어서 유관검이 “이는 우리 국교 중에 고명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라고 하자, 주문모 신부가 “성교공부가 만약 성인품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천주당을 그 사람의 무덤 위에 세우고, 훗날 동방성교가 크게 행해지면 곧 이 두 사람의 무덤은 마땅히 천당(천주당; 성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는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 뿐, 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번 첫 순교자의 묘와 유해가 발견됨으로써 『사학징의』의 내용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번 첫 순교자 묘와 유해의 발견은 한국천주교회 역사 사료의 부족하고 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8) 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69-17번지 일대

9)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1845년 3~4월 작성하여 상해에 가서 그해 7월에 리부아 신부에게 발송한 조선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윤지충이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박해에서 탁월한 학자인 윤지충(尹持忠)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용맹하게 투쟁하다가 가톨릭교의 신앙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분도출판사, 2020 개정판, p.142.

10) “身與存昌往見神父於桂洞崔仁吉家 而仍爲邀去鄉第矣 適路由於持忠尙然之塚下故矣 身謂神父曰 此是我國教中高名人之塚是如 則神父曰 聖教工夫 若至聖品 則當建天主堂於其人墓上 他日東方聖教大行 則此兩人塚 當入於天堂之內”, 『사학징의』2권 p.233.

③ 호남의 사도 복자 유허검과 초남이 신앙공동체의 재발견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지도자로, 호남지방의 사도로 활동한 복자 유허검 아우구스티노는 복자 윤지충 권상연과는 내외종간이다. 즉, 세 사람은 같은 시기에 신앙을 받아들인 신앙의 동료이면서 동시에 친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발견된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묘는 유허검 소유의 땅으로 추정된다. 묘가 조성된 1792년 11월에는 유허검이 여전히 그 지역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동료로서나 혈육으로도 마땅히 유허검이 이 자리에 첫 순교자들의 묘를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에 발견된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 그리고 복자 윤지현의 묘와 유허를 통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복자 유허검의 역할과 초남이 신앙공동체의 위상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사적 성과와 가치

① 순교자 묘지의 형태와 조성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묘는 일반적인 묘와 다른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이 위치한 깊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깊었다. 문화사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묘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문화사적인 의미를 연구할 수 있는 경우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한국천주교 초기부터 발견되어 온 순교자들의 묘지 형태의 변화나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한다.

② 묘지석(墓誌石)

묘 중에는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묘소의 소재를 기록하여 무덤에 묻어 두는 표지, 즉 묘지석이 발견되곤 한다. 바우배기 묘지에서도 묘지석이 발견되었다. 3호와 5호, 즉 복자 권상연과 윤지충의 묘에서 “묵서명 백자사발지석”이 각각 1점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8호, 즉 복자 윤지현의 묘에서는 숯가루가 담긴 “청화 백자제기접시”가 발견되었다. 문화사적으로 다양한 묘지석이 발견되는데, 천주교 순교자 묘에서 발견된 묘지석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들이다.¹¹⁾

이처럼 순교자들의 묘에서 나온 묘지석은 문화사적으로 묘지석의 형태, 묘지석에 기록하는 방식, 묘지석의 의미 등 묘지석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과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③ 유허에 새겨진 생생한 순교의 흔적

시신이나 유허에는 어떤 사건을 드러내는 지문, 즉 흔적이 남아 있다. 이번에 발견된 순교자들의 유허에도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1791년 12월 8일 전주 남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두

11) 유허검 일가족의 이장에 관한 기록에는(김현배 주교의『비망록』기록, 병인치명사적 16권에서 김마르첼리노가 증언한「유허검 아우구스티노 집안 사정」의 기록, 김홍섭 판사의 수필 「순교자의 유지를 찾아서」,『무상을 넘어서』의 기록 등) 바우배기에서 이장할 때, 각각의 묘지에서 인적사항이 적힌 사발이 나왔다고 했고, 1993년 치명자산 묘지를 확인할 때도 인적사항이 적힌 사발이 나왔다. 현재 치명자산 성지에서 보관하고 있다. 서울대교구에서 2017년에 펴낸『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화보집 236~237페이지에는 여러 성인과 순교자들의 “묵서명 백자사발지석”이 실려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출토된 “묵서명 백자사발지석”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형태와 내용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순교자를 수습한 이장업체의 증언에 의하면, 두 순교자 모두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따로 묻혔을 경우 가능할 수 있는 형태라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5호 윤지충 복자의 유해의 다섯 째 목뼈의 왼쪽 부분에서 사망 무렵 예기 손상(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구에 의해 오른 위쪽에서 왼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절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소견)이 관찰된 것이다. 이는 참수형의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다.

8호, 복자 윤지현의 유해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복자 윤지현은 1801년 전주 남문 밖 형장에서 복자 유항검과 함께 능지처참형으로 순교했다. 능지처참은 참수하여 목을 벤 후, 사지(양팔, 양다리)를 찢거나 잘라서 각지로 보내는 형벌인데, 8호 유해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망 무렵 골절인 예기 손상이 둘째 목뼈와 양쪽 위팔뼈, 왼쪽 넓다리뼈(대퇴골)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능지처참형의 분명한 증거이다.

이 흔적들은 역사상으로 존재했지만, 과거가 되어버린 조선시대 형벌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천주교 신자들은 유해 자체에 드러난 이 흔적, 즉 사실성을 통해 순교신앙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은 말로나 지식으로만 듣고 배우는 체험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전율적 체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자들의 유해에 드러난 이 흔적이 우리나라에는 국보급 보물로 자리매김 되리라 생각한다. 이만큼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보물이 없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영향과 가치

① 순교자 유해 발굴의 모범

이번 발굴 작업은 천주교 전주교구, 성지담당 신부, 교회사 전문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연계하여 발굴의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고증 작업과 유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발굴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순교자 유해 발굴에 있어서 하나의 전범을 만든 일은 천주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크나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한국 최초의 순교자의 유해 발굴은 전형으로 남아, 앞으로 모든 순교자 유해 발굴에서 모범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 유해 발굴이 보고서로 발간되어 전국 관계자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고 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공유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유해 발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순교자들을 만나는 신앙적 의의

①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의 신앙적 지향

우리나라 첫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유해와 그로부터 10년 후 순교한 윤지충의 동생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유항검 복자의 가족묘가 원래 위치했던 곳으로 전해오던 곳이다.

두 순교자는 조선의 전통적인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으로 인해 순교하였기에 당시로는 삼강오륜을 저버린 강상죄인(綱常罪人)¹²⁾ 살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자로 간주된 두 사람의 시신을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땅에 매장한 것은 커다란

사랑과 형제애의 표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까운 혈육이기 이전에 신앙에 있어서 이들이 그야말로 동지요, 형제였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평상시 성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항검·유관검 형제는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 누구보다도 첫 순교자들을 공경하였던 자들이기에 첫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기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셨다고 볼 수 있다.

② 신앙채신으로의 초대

순교자들의 유해는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써 공경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구원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곧 채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씨앗(semen)¹³⁾”이라고 가르치신 3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교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1794년 11월 25일 마카오 주재 포교성 대표 마르키니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서 두 순교자가 흘린 피는 씨가 되어 더 많은 신자들을 불러모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¹⁴⁾라고 기록하였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순교는 조선 천주교회가 사그라지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면, 230년이나 지난 지금 이들 유해 발견이 신자들의 신앙채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희망해본다.

5.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 발굴을 통한 순교자 현양의 방향

2008년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전주교구 신앙의식조사에서 신자들은 전주교구의 가장 큰 강점으로 ‘최초의 자치교구, 순교자가 많은 교구 역사’(64.5%)를 꼽았다.¹⁵⁾ 일찍이 전주교구는 ‘순교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교역사의 터전에서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부심으로 안고 살아왔다. 많은 순교신앙의 역사와 유산을 물려받은 전주교구가 순교 영성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일은 전주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영적 과업이다.

① 증거의 상속자 - 기억의 지킴이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하여 방한하였을 때, 한국주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을 ‘순교자들의 후손’, 그리스도 신앙을 영웅적으로 증언한 그 ‘증거의 상속자들’, 평신도들에게서 시작되어 여러 세대에 걸친 그들의 충실성과 끊임없는 노고로 크게 자라난 ‘매우 비범한 전통의 상속자들’이라고 불렀다. 동시에 이들 순교자들에 대한 기억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억의 지킴이’가 되라고 촉구하였다.¹⁶⁾

12)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에 어긋난 죄를 지은 사람.

13) 정확한 라틴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Plures efficitur quotiens metimur a vobis; semen est sanguis Christianorum.” 「호교론」 50, 13

14) 윤민구 역, 초기한국순교자 시복 자료집 ①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0, 102.

15) 천주교 전주교구 <전주교구 설정 70주년 기념 신자신앙의식조사 보고서> 2008

16)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에 즈음한 대한민국 사도 방문(2014년 8월 13-18일) 한국 주교들과 만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연설,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강당, 2014년 8월 14일, <https://cbck.or.kr/Documents/Pope/402464?page=12>(검색일: 2021.7.19.).

우리나라 첫 순교자인 이들 유해의 발견을 통하여, 기억의 지킴이인 우리가 이제 그들에 대한 기억을 현실화하면서 그들을 현양함은 그들이 지녔던 자세를 우리가 다시 배우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순교자들은 하느님 대전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구자들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이자 모범이기 때문이다.¹⁷⁾

② 순교영성의 현재화

한국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과 현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와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들의 거룩한 유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식별하고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순교자 현양이 시대에 걸맞는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순교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빛은 종교적 진리의 빛인 동시에 개개 인간의 내적인 삶을 따뜻하게 덥히는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살며 서로의 숨결을 나누는 ‘공생(共生)’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이다. 공생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로부터 창조적 기운을 복돋우는 창조적 생명 운동이 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주체요 역사의 주도자로서의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¹⁸⁾

③ 신앙의 전수와 전달 - 문화의 성화(聖化)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만 참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한다.”(사목헌장, 53항) 문화의 발전은 문화원형의 보존과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순교자들은 가톨릭교회에서 공경하고 기리는 분들이지만, 넓은 안목에서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공통된 가치관, 사랑, 우정, 신뢰, 나눔, 용서의 가치를 보여준 분들이라는 점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문화적인 언어와 콘텐츠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책,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활용하면서 수용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의미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역시 문화 콘텐츠화하여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문화에 맞서 싸울 때 세상을 성화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나누며

1791년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목숨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20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은 명백하다. 그분들의 죽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미래

17) 김성봉, “성인 공경, 모범을 따르며 전구를 청하다”, 『경향잡지』, 11, 2020, 52-56 참조.

18) 신광철, <문화의 시대-21세기 종교문화의 지향>,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510호

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계시이다.

하느님께서도 오늘도 거룩한 순교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신다. 모쪼록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이 신앙의 통공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초대로 받아들여져 교회와 세상의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세상에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와 세상을 성화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순교자 현양의 길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성 요한 바로로 2세 교황, 1984. 한국성인 103위 시성식>

15. 순교자 현양¹⁹⁾과 공경을 위한 이후 일정

(1) 9월 16일(목) 10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현양 미사 및 유해 안치식’ - 초남이성지

(2) 9월 24일(금) 14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해 진정성에 관한 보고회’ - 초남이성지

가. 보고서 발간식

나. 보고회

다. 질의응답

라. 묘소 현장 방문

19) 顯揚, ‘현양’이란 말은 나타낼 현(顯) 자에 오를 양(揚) 자를 써서 굳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들어 올려 나타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은 순교자들의 고귀한 얼과 뜻을 기리고, 영광스러운 행적을 널리 보급하여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깊고 굳건히 하는 것.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다.

●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는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현양하게 하셨나이다.

◎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에게는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참고 자료

<목 차>

1. 간추린 한국 천주교회사 연표	1
2. 순교자(殉敎者)란	3
3. 시복(諡福), 시성(諡聖)이란	4
4. 성인(聖人)이란	6
5. 복자(福者)란	7
6. 유해(遺骸)공경	7
7. 복자 유향검 아우구스티노	8

1. 간추린 한국 천주교회사 연표

- 1779년 겨울 주어사에서 강학 중 천주교 교리에 대해 토론
- 1784년 2월 이승훈 북경 북당에서 예수회원 그라몽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 받음 - 이승훈 세례(첫 세례자)
- 1784년 10월 한국천주교회 창설,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 주도로 첫 번째 세례식 거행 - 한국천주교회 창설
- 1791년 12월 8일 신해박해. 윤지충과 권상연 전주에서 참수 순교. 최초의 순교자
- 1794년 12월 24일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신부인 주문모 의주를 통해 입국
- 1795년 6월 28일 주문모 신부 체포 실패로 을묘박해 일어남. 윤유일, 지황, 최인길 포도청에서 장살
- 1801년 1월 신유박해. 최필공이 체포되면서 박해가 시작됨
- 1801년 5월 31일 주문모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
- 1801년 10월 24일 호남의 사도 유항검과 동료 전주 남문밖에서 순교
- 1815년 4월 1일 을해박해 일어남. 경상도 북부 교우촌에서 71명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14명이 순교
- 1827년 2월 전라도 곡성 지방에서 정해박해 일어남. 16명 순교
-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 대목구 설정. 파리 외방전교회 브뤼기에르 주교가 초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됨 - 조선 대목구 설정
- 1836년 1월 12일 모방 신부 조선 대목구장 직무대행으로 의주 변문을 거쳐 조선 입국, 서양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 입국에 성공
- 1836년 12월 3일 유 파치피코 신부 조선인 신학생 최양업, 최방제, 김대건과 함께 조선 출발
- 1839년 1월 16일 권득인이 체포되면서 기해박해 일어남
- 1839년 9월 21일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새남터에서 순교. 페레올 주교 제 3대 조선 대목구장 승계
- 1841년 8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앵베르 주교의 청원을 들어 조선의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허락 - 한국 주보성인 허락
- 1845년 8월 17일 김대건 부제 김가항 성당에서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 - 한국인 최초의 사제서품
- 1845년 10월 12일 김대건 신부,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나바위에 도착
- 1846년 6월 5일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사 입국로를 탐색하던 김대건 신부가 순위도에서 체포됨으로써 병오박해 시작됨
-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
- 1866년 2월 23일 베르뇌 주교와 홍봉주 체포로 병인박해 일어남
- 1866년 3월 7일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도리, 볼리외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 다블뤼 주교 제5대 조선 대목구장 승계
- 1866년 9월 병인양요 발생. 프랑스군의 1차 침공으로 로즈 제독이 조선 서해안을 정찰하며 한강을 거슬러 서강까지 올라옴
- 1868년 5월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 의해 남연군묘 도굴을 시도한 덕산 굴총 사건 발생.

무진박해 일어난

-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서양 국가에 문호 개방
- 1886년 6월 4일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나가사키 성서 활판소 서울 정동으로 이전
- 1893년 4월 23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 성당인 약현 성당 축성
 - 최초의 성당 축성(약현성당)
- 1896년 4월 26일 한국에서 최초로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어 강성삼, 정규하, 강도영 신부
 - 약현 성당에서 사제 수품
 - 한국 최초의 사제서품
- 1904년 6월 프랑스 공사 플랑시와 외부 대신 이하영 사이에 선교조약 체결
- 1906년 10월 19일 경향신문 창간
- 1911년 4월 8일 조선 대목구를 서울 대목구로 개칭하고 대구 대목구 분리 설정. 초대 대목구장에 드망즈 신부 임명
 - 대구 대목구 분리
-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 베드로 대성전에서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식 거행
 - 79위 시복식
- 1925년 9월 26일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 기념식 거행
- 1937년 4월 13일 전주 지목구 설정. 초대 지목구장으로 김양홍 신부 임명.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 설정
 - 최초의 자치교구 설정(전주)
- 1942년 12월 20일 한국인 최초의 주교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 주교 서품식 거행
 - 최초의 한국인 주교 서품
- 1942년 10월 12일 초대 교황사절 번 신부의 귀국 환영 미사를 명동 성당에서 거행
 - 초대 교황사절
- 1962년 3월 10일 한국 교회 정식 교계제도 설정
 - 한국 정식 교계제도 설정
- 1965년 1월 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우리말 미사 집전
- 1968년 1월 개신교와 공동으로 신구약성서의 공동번역 작업 시작
- 1968년 10월 6일 바티칸에서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식 거행
 - 24위 시복식
- 1969년 5월 20일 김수환 대주교 추기경 승품
 - 한국인 첫 추기경(김수환)
- 1974년 9월 2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명동성당에서 제1차 시국선언 발표. 천주교 신자 100만명 돌파
- 1981년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 1981년 11월 한국 외방선교회가 파푸아뉴기니로 선교 사제 4명을 파견함으로써 한국 교회 최초로 해외 선교사 파견
 - 최초의 선교사 파견
-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집전으로 한국 천주교회 설립 200주년 기념식 및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 거행 -103위 시성식
- 1989년 10월 5-8일 제44회 세계성체대회 서울에서 개최. 10월 8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집전으로 여의도에서 미사 집전
- 2014년 8월 10-13일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개최.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 2014년 8월 16일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집전
 - 124위 시복식

2. 순교자(殉敎者)란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mar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순교란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 바치는 행위를 말한다. 전에는 이를 치명(致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믿음, 즉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2세기 중엽부터 교회는 재판소에 끌려가서 말씀의 증언을 하고도 죽지 못한 자를 증거자(證據者), 피로써 증언한 자를 증인(證人, Martyres)이라 불렀는데, 이 후자의 경우를 순교자라 한다.

3. 시복(諡福), 시성(諡聖)이란

1. 의의 : 시복 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2. 조사 : 먼저 고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교는 시복 준비 조사 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 자료 조사 과정을 시작한다.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 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한다.

그 후 교황의 조사에 대한 허락이 있으면, 교황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이때 시복 대상자에게 가경자(可敬者)¹⁾라는 존칭이 주어진다. 그런데 시복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 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3. 시복 : 덕성이 확정되고 그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의사나 병리학자 등이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며,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적이 확인되면, 교회는 그를 복자로 선언(諡福)한다.

4. 시성 : 그 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될 때, 그를 성인으로 선언(諡聖)하고 의식을 행한다. 시성은 복자에 한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복자는 그 공경이 어느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 그런데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의 행위이다.

5. 축일 : 또한 미사 경본이나 사제의 성무 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게 된다. 성인들의 축일은 대개 사망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날을 영명 축일로 정하게 된다.

6. 한국 순교 성인 : 한국 교회는 1857년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으며, 그중 79명이 1925년에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한편 1866년 병인 박해 순교자 중 24명이 1968년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이때는 새 교회법의 반포로 가경자의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이는 시성 시복의 간소화로 가경의 의의가 약화되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설립 20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하여 한국 순교 복자 103위를 시성하였다. 물론 순교자이기에 기적 심사는 면제되었으며,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밖에서 시성되었다.

1) 시복(諡福)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 시복 조사가 교황청 예부성성에 접수되면 시복 후보자에게 이 존칭이 주어진다. 한국 천주교회는 1857년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이미 시복(諡福)된 복자를 성인의 명부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한다.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福者)에 한해서 행해진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보고되면 심사는 재개되고 시복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된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영원한 광명 속에 있으며 세계 교회는 그에게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하게 된다.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 교회에 의해 공경된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목 방문차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4. 성인(聖人)이란

가. 의의 : 성인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덕이 뛰어나, 길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컫는다. 가톨릭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를 말한다. 이는 하느님을 직접 뵈옵고 복락(至福直觀)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자들이기에,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의 귀감으로 선언하고 존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성인의 품위에 올린다.

나. 유래 : 성인의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자를 공경한 데서 시작되었다. 박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5세기경에는 이름 앞에 ‘성(聖)’자를 붙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고 덕행의 위대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인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토록 하였다.

다. 공경 : “지상 여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과 같이, 성인들과의 일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친구요 공동 상속자들이며 우리의 형제요 탁월한 은인들인 성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기 위해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교회 헌장 48~50항 참조).

성인에 대한 공경과 그들과의 참다운 교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²⁾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완전하게 할 것이다. 진정한 성인 공경은 우리의 행동적 사랑의 깊이에 있으며,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찾고 통공³⁾에서 일치를 찾으며 전구⁴⁾에서 도움을 찾아야 하겠다(교회 헌장 51항).

2) 欽崇,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행위. 흠숭은 기도와 찬미, 희생과 봉헌 등을 표현하는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흠숭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성인전구(聖人轉求)의 효력을 선포한 제2차 니체아 공의회가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恭敬, veneratio)과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adoratio)을 구별하여 규정한 적이 있다(교회헌장 66).

3) 通功,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로(功勞)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을 뜻한다.

4) 轉求,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간청하고 탄원하는 행위로서,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

5. 복자(福者)란

가톨릭 교회가 시복(諡福, 복자로 추대함)을 통해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공식 선포한 사람. 남자는 복자, 여자는 복녀라 한다. 복자가 시성(諡聖, 성인으로 추대함)되면 성인(여자는 성녀)이 된다. 복자는 위의 시복과정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으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한국에서만 공경이 가능하다.

6. 유해(遺骸)공경

유해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첫째, 유해는 성인이나 복자의 몸이나 그 일부를 가리키며 제대석에 안치된다. 둘째, 유해는 옷과 같이 성인이 사용한 물건이나 순교 때 사용된 도구를 가리킨다. 셋째, 유해는 유해에 직접 닿은 옷과 같은 다른 대상물을 가리킨다. 진정한 십자가 유해와 그리스도의 수난 때 사용되었던 다른 도구들도 보존되어 있으며 교회의 허락을 받아 이들을 공경할 수 있다.

현행 교회법 제2편 제4장에서 지적하듯이 모든 유해 공경은 합법적이다. 성인들의 유해에는 공경지례만 가능하며, 사물이 아닌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중요한 유해는 성좌의 허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구히 이전될 수 없고, 거룩한 유해는 판매할 수 없다(교회법 1190조).

7.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복자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는 1756년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서 양반인 아버지 유동근과 안동 권씨 권근의 후손인 어머니 권조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유항검 집안은 양반이면서 본가와 외가, 처가까지 모두 남인(南人)이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호였으며 덕망 또한 높았다. 그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이종사촌이며,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교리서적을 빌어 보고는 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권일신(權日身)을 찾아가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가성직제도⁵⁾에 의해 신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는 고향에서 전교에 온 정열을 쏟아 호남지방 교회 창설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호남의 사도'(使徒)로 불리게 되었다. 가성직 제도가 교리에 어긋나며 독성행위(瀆聖行爲)가 됨을 깨닫고 이를 시정키 위해 북경주교에게 문의편지를 내게 한 것도 그였다. 이렇게 해서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하여 지방에 내려왔을 때에는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여 함께 전교에 힘썼다.

따라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전라도지방에서는 그가 제일 먼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는 형조의 심문에서, 외국인 신부의 입국을 도와 내통하였고, 사교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 청원서를 냈다는 죄목으로 대역부도(大逆不道)죄를 적용하여 능지처참의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리하여 전주감영으로 다시 이송되어 1801년 10월 24일 참수되었는데 그의 나이 46세였다. 부인 신희(申喜), 큰아들 유중철(柳重哲), 며느리 이순이(李順伊), 둘째 아들 유문석(柳文碩), 동생 유관검(柳觀儉) 등이 처형되었다. 나이 어린 세 자녀는 유배되었다.

5)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성무(聖務)를 집행했던 제도. 한국 천주교회 창설기인 1786년부터 1787년경까지 이승훈(李承勳, 베드로),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 홍낙민(洪樂敏, 루가) 등 10여명의 지도급인물들이 약 2년간 신품(神品)을 안받은 채 사제(신부)로서 미사성제(聖祭)를 드리고 고해(告解) 등 각종 성사(聖事)를 집전하였다.

이 제도는 이벽이 북경에 가서 직접 성직자들의 성사 집행광경을 보고 온 이승훈에 의해 교회발전책으로 제의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유항검이 교리서(敎理書)를 자세히 연구하여 본 결과 신부의 자격과 신부를 임명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큰 의심을 품게 되어 성사를 중단하고 북경주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1790년 윤유일로부터 북당 선교사들의 회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회답에서 선교사들은 성사를 마구 집전한 것을 무지로 돌리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통회로써 구원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고,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은 성직자를 영입하는 것이므로 그 조속한 실현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평신도들은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가 교회에 필요함을 비로소 인식하고 북경교회에 선교사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윤유일을 다시 밀사(密使)로 북경에 파견하게 되었다.